

완성차 기업 주도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플랫폼 중심 전동화 전략과 일본 도로교통 시장 전환

해당국가	일본	기관(기업)	혼다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- 일본 도로교통 분야는 전기차 단독 전환보다 하이브리드와 전동화를 병행하는 현실적 감축 전략을 채택하며 완성차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 중심 시장 전환 추진
 - 혼다는 2025년 11월 2020년대 후반을 목표로 하는 전동화 및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며 하이브리드를 일본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
 - EV 전환이 인프라, 비용,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단기간 내 전면 확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 단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보하는 기술 전략 채택
 - 전기차(EV)와 하이브리드(HEV)를 병행하는 다층적 전동화 전략을 통해 도로교통 부문에서 단계적 탄소 감축 경로 구축
 - 일본 친환경 자동차 전환은 정부 정책과 함께 완성차 기업의 기술 로드맵과 양산 전략이 시장 전환을 견인하는 구조
 - 혼다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플랫폼과 전동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향후 양산 모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 기반의 시장 전환 유도
 - 이는 일본 친환경차 전환 정책이 규제 중심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 주도형 전환 특징을 갖는 점을 반영
- 차세대 하이브리드 플랫폼과 전동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비·성능·주행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 전환이 본격화
 - 혼다는 2027년 이후 적용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며 경량화·고강성·모듈화를 핵심 설계 방향으로 설정
 - 차세대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기존 대비 약 90kg 경량화를 통해 차량 중량 감소와 연비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
 - 모듈형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차종 간 부품 공용률을 확대하고 개발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
 - 대형 차량용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대형·고출력 차량 영역에서도 친환경 기술 적용 범위 확대
 - 신형 V6 엔진과 고효율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비 약 30% 연비 개선과 가속 성능 향상 목표
 -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과 전동 시스템의 에너지 분배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에너지 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효율성과 응답성을 동시에 개선

※ 출처 : 혼다(2025.11.06), 「Honda 四輪技術ワークショップ」において 2020年代後半に投入予定の電動車向け次世代技術を公開